

『雪竇頌古』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

- 호림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 with a focus on Horim Museum edition -

정 영 식 (Jeong, Young Sik)*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한국에서 『雪竇頌古』의 간행 및 판본 |
| 2. 『雪竇頌古』의 편찬과 한국 전래 | 3.1 호림박물관 소장 『雪竇頌古』의 서지사항과 특징 |
| 2.1 『雪竇頌古』의 편찬과정과 현존본 | 3.2 조선전기 공안집의 간행 |
| 2.2 『雪竇頌古』 주석서의 편찬과 유통 | 4. 결론 |
| 2.3 『雪竇頌古』의 한국 전래와 유통 | <참고문헌> |

< 초 록 >

『雪竇頌古』는 중국 송대의 雪竇重顯(980~1052)이 공안 100칙에 頌을 붙인 것이다. 이 『설두송고』를 圓悟克勤(1063~1225)이 강의한 강의록이 『碧巖錄』이다. 『설두송고』는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읽혀졌지만, 간행된 기록도 없고 현존본도 없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 世祖대에 木活字로 간행된 『설두송고』가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元代의 1342년에 간행된 것을 조선에 가져와 그대로 찍었다고 생각되지만, 간기가 없어 간행자와 간행연도를 알 수 없다. 다만 卷末에 惠川福珪가 쓴 서문이 붙어 있을 뿐이다.

한편 중국국가도서관에는 『四家錄』이 존재하는데, 『사가록』이란 宏智頌古·雪竇頌古·投子頌古·丹霞頌古를 가리킨다. 이 『사가록』은 호림박물관본과 같은 해인 1342년에 浙江省에서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가록』을 간행한 사람은 海島·惠川福珪 등이다. 따라서 혜천복규는 중국 절강성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가록』의 『설두송고』에 서문을 쓴 사람은 혜천복규가 아니라 慧從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본은 호림박물관본과는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또 국가도서관본에는 ‘新刊四家錄’이라 적혀있는 반면, 호림박물관본에는 ‘重刊四家錄’이라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호림박물관본에는 曇玉의 서문 뒤에 ‘至正壬午歲重書’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도서관본에는 이 글자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342년 중국의 절강성에서는 海島·惠川福珪 등이 新刊四家錄을 간행하였고, 그 후 같은 해에 다시 重刊四家錄을 간행하였으며 이때 惠川福珪가 서문을 썼다. 이 중간사가록을 조선에 가져와 목활자로 찍은 것이 호림박물관본이라 추측된다. 현재 이 중간사가록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초기에 『벽암록』이나 『설두송고』는 대중화된 서적은 아니었지만, 학식이 높은 승려나 선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선비들

*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salzini@dongguk.edu)

접수일: 2016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에게는 읽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량의 부수만을 찍기 위해 목활자로 간행한 것이라 생각된다.

要語: 雪竇頌古, 碧巖錄, 四家錄, 木活字, 公案集

<ABSTRACT>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雪竇頌古) is a compilation of comments written by Xuedou-zhongxian (雪竇重顯, 980~1052) during the Song Dynasty on 100 principles of Buddha's teaching. Based on this, Priest Yuanwu-keqin (圓悟克勤, 1063~1225) made a book of lectures titled *'Blue Cliff Record (碧巖錄)*'.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began to be read since the Goryeo Dynasty, but there has been no published records or remaining copy of the book. However, it became known that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printed in wooden typ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in the Joseon Dynasty is owned by Horim Museum. Presumably, it is a duplicate copy of the book published in China in 1342 during the Yuan Dynasty. However, the name of publisher or the date of publication cannot be found due to the absence of imprint. The book only has a preface written by HuiChuan-fugui (惠川福珪) attached at the end of the book.

National Library of China owns *'Sagarok (四家錄)*, which includes *'hongzhisonggo (宏智頌古)*, *'xuedousonggo (雪竇頌古)*, *'touzisionsonggo (投子頌古)* and *'danxiasonggo (丹霞頌古)*. *'Sagarok'* was printed in Zhejiang Province in 1342, the same year that the Horim Museum edition was printed. *'Sagarok'* was published by HaiDao (海島), HuiChuan-fugui and others. It means that HuiChuan-fugui was from Zhejiang Province in China. For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included in *'Sagarok'*, HuiCong (慧從), not HuiChuan-fugui, wrote a preface. Thus, we can surmise that the edition of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at National Library of China is different from the one at Horim Museum. While *'Sagarok first edition'* is written o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edition, the Horim Museum edition is noted to be *'Sagarok revised edition'*. In addition, *'jijeongimosejungseo (至正壬午歲重書)* is written after the preface by TanYu (曇玉) on the Horim Museum edition, but this wording is missing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edition. That is, HaiDao, HuiChuan-fugui and others published first edition of *Sagarok* in Zhejiang Province of China in 1342, and its revised edition in the same year with the preface by HuiChuan-fugui. Presumably, the Horim Museum edition is this revised edition of *Sagarok* brought into Joseon to be printed in wooden types. It is unknown who printed the revised edition of *Sagarok* with what purpose.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neither *'Blue Cliff Record'* nor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were popular, and they are likely to have been read by a few well-learned priests and classical scholars interested in Zen buddhism. Probably, wooden types were used to print only a small number of books.

Key words: *Blue Cliff Record, the versified comments for kōan by Xuedou, Sagarok, wooden types*

1. 서론

『雪竇頌古』는 중국 송대의 운문종 승려인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공안 가운데서 100칙을 선별하여 頌을 붙인 것으로 頌古百則으로도 불린다. 『雪竇頌古』에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225)이 著語와 評唱을 붙여서 간행한 것이 『碧巖錄』이다. 『雪竇頌古』는 중현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1050년경에 간행되었다고 추측되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본은 1225년경에 간행된 송판(중국국가도서관 소장)이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 『雪竇頌古』가 간행된 횟수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碧巖錄』 속에 『雪竇頌古』가 들어 있으므로 단독으로 유통될 필요가 없었다는 점과 둘째, 대장경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존간본도 대단히 적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현재까지 『雪竇頌古』의 간행본은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雪竇頌古』가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호림박물관 소장 『雪竇頌古』는 四家錄의 일부분으로서 중국 원나라 때인 1342년(至正 2)에 浙江省에서 간행된 것을 조선 세조 때에 재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이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유일의 『雪竇頌古』 간본이다.¹⁾

본 논문에서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雪竇頌古』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아울러 그 불교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雪竇頌古』의 간행과 그 주석서들을 먼저 고찰하고, 『雪竇頌古』가 우리나라에 유통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호림박물관 소장의 『雪竇頌古』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조선

* 본고의 작성에 있어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송정숙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1)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雪竇頌古』의 간본이 없기 때문인지 연구논문도 거의 없다. 유일한 연구논문인 이진숙, “雪竇頌古集에 관한 고찰,” 『정도학연구』 13(2006)은 일본의 논문을 대거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에도 연구성과는 많지 않는데, 연구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檀林皓堂, “雪竇頌古と宏智頌古 - 宏智頌古製作の意義,” 『日本佛教學會年報』 22(1957).

柳田聖山, “雪竇頌古の世界,”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紀要』 10(1978).

永井政之, “雪竇頌古の展開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2-1(1973).

전기에 공안집의 간행상황과 배경을 찾아볼 예정이다.

2. 『雪竇頌古』의 편찬과 한국 전래

2.1 『雪竇頌古』의 편찬과정과 현존본

『雪竇頌古』란 설두중현이 고인의 공안 100칙을 선별하여 이에頌을 붙인 것이다. 설두중현이 雪竇山에 주석하여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1022년경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제자인 遠塵이 기록하여 간행한 것은 아마도 1038년이나 1050년 둘 중의 한 해일 것이다.

그 이유는 四部叢刊本 『雪竇七部集』에 들어있는 송판 『雪竇頌古』의 서문에 ‘攝提格, 月仲牡哉生魄’이라고 간행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祖庭事苑』에 의하면 ‘攝提格, 月仲牡哉生魄’은 寅年 8월 16일을 가리킨다고 한다.²⁾ 중현이 설두산에 주석한 이후 입적하기 전까지 寅年은 天聖 4년(1026)과 寶元 元年(1038), 그리고 皇祐 2년(1050)의 세 번이 있었다. 柳田聖山은 이 가운데 1050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측한다.³⁾ 1050년은 중현이 입적하기 2년 전이다. 이처럼 『雪竇頌古』는 중현의 생존 중에 이미 간행되었다.

설두중현은 『雪竇頌古』 이외에도 어록을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현이 생존했을 때에 간행된 것들이다. 중현 사망 후에 제자들이 이러한 저술들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 이른바 『雪竇七部集』이다. 『설두칠부집』은 1065년

2) 『祖庭事苑』, 만속장경 X64, 333c.

“攝提格: 歲名. 太歲建寅. 曰, 攝提格.

月仲牡: 爾雅八月爲牡. 郭璞云, 日之別名. 歲陽至此. 其事義皆所未詳.

哉生魄: 哉音載. 始也. 始生魄. 月十六, 明消而魄生. 歲攝提格月仲牡哉生魄, 卽寅年八月十六日.”

3) 柳田씨에 의하면, 선종 燈史인 『天聖廣燈錄』(1036년 편찬) 속에 설두중현의 傳記와 語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雪竇頌古』를 편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入矢 義高等譯, 『雪竇頌古』. 禪の語錄 15 (일본: 竺摩書房, 1982), 295.

이전에 간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설두칠부집』에 합집된 개별 저술의 간행시기와 편찬자는 다음과 같다.

- ① 住蘇州洞庭翠峰禪師語: 參學小師 惟蓋竺 編
- ② 明州雪竇明覺大師開堂語錄: 天聖 4년(1026), 門人 文軫 錄
- ③ 雪竇和尚明覺大師瀑泉集: 天聖 8년(1030), 參學小師 圓應 編
- ④ 慶元府雪竇明覺大師祖英集: 天聖 10년(1032), 參學小師 文政 編
- ⑤ 雪竇顯和尚明覺大師頌古集: 歲攝提格月仲牡哉生魄(1050), 參學小師 遠塵 集
- ⑥ 雪竇和尚拈古: 天聖 10년(1032), 參學小師 允誠·思恭 集序
- ⑦ 雪竇和尚後錄: 參學小師 子環 集

이 가운데 ⑤가 바로 『雪竇頌古』이다. 여기에서 보면, 『雪竇頌古』는 『설두칠부집』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두칠부집』은 단독으로 간행되던 중현의 저술을 모은 것이므로, 『雪竇頌古』도 일찍부터 단행본으로서 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碧巖錄』이 성립된 1125년 이후는 단독으로 간행된 횡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雪竇頌古』가 『碧巖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碧巖錄』은 『雪竇頌古』에 원오극근(1063~1125)이 착어를 붙인 것으로 종래 ‘宗門第一書’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따라서 『碧巖錄』이 간행된 이후로 원본인 『雪竇頌古』는 오히려 등한시되었다. 둘째는 『雪竇頌古』가 대장경에 入藏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두중현의 어록이 대장경에 처음 입장된 것은 明代 南藏부터인데 『雪竇明覺禪師語錄』 6권이 입장되었다. 그런데 이 『설두명각선사어록』에 설두송고는 들어 있지 않다. 이후의 대장경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雪竇頌古』의 현존본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雪竇頌古』는 개관횡수가 많지 않으며, 현존본도 적다. 현존하는 『雪竇頌古』의 제 간본은 다음과 같다.

<표 1> 『雪竇頌古』 현존본의 간행, 소장사항⁴⁾

	書名	간행처	간행연도	소장처	비고
1	雪竇顯和尚 明覺大師頌古集		1225년 경	중국국가도서관	宋版. 刻本. 四部叢刊本. 일본 禪의語錄 15의 저본
2	雪竇禪師百則頌古		1289년	일본 東洋文庫	五山版
3	雪竇顯和尚 明覺大師頌古集		1324년	일본 成篋堂文庫	元版. 송관의 복각본
4	雪竇顯和尚頌古	杭州 大明禪寺	1342년 (至正 2)	중국국가도서관, 대만국가도서관	刻本, 四家錄本
5	雪竇顯和尚 明覺大師頌古集	上海商務印 書館	1934년	중국국가도서관, 대만국가도서관	四部叢刊本, 송관의 영인본
6	雪竇禪師 百則頌古	京都, 花園教學	1888년 (明治 21)	일본 駒澤大學	諸山開祖傳과 합刻
7	雪竇禪師 百則頌古		1926년	일본 駒澤大學	塗毒鼓本

2.2 『雪竇頌古』 주석서의 편찬과 유통

2.2.1 『碧巖錄』⁵⁾

『碧巖錄』은 원오극근(1063~1225)이 『雪竇頌古』에 垂示·著語·評唱을 붙인 것이다. 이것은 원래 『雪竇頌古』를 강의한 강의록으로서, 원오가 成都·夾山靈泉院⁶⁾·道林寺 등에서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필사하여 유포하였다. 따라서 자구를 주석한 주석서라기보다 강의록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처음에는

4) 이 표는 필자가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日本: 大東出版社, 1993)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국가도서관, 대만국가도서관, 일본 구택대학도서관 등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5) 『碧巖錄』의 간본에 대해서는 末木文美士, “『碧巖錄』의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1992)을 참고하였다.

6) 『碧巖錄』이라는 명칭은 협산 영천원에서 유래한다. 영천원을 碧巖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계기는 당나라 때에 영천원을 개창한 夾山善會(805~881)가 그곳의 풍경을 묘사하여 ‘猿抱子歸青嶂後, 鳥銜華落碧巖前’이라고 읊었던 데서 유래한다.

사본의 형태로 전해지다가 원오가 입적하기 전인 1128년에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초기에는 여러 간본이 존재했으므로 칙의 배열순서 등 내용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 전설에 의하면 원오의 제자인 大慧宗杲(1089~1163)가 『碧巖錄』이 문자에의 집착을 초래한다고 해서 판목을 불태워 버렸다고도 한다.

『碧巖錄』에는 사본과 간본의 두 형태가 존재하는데, 사본쪽이 古形을 보존하고 있다. 사본에는 소위 一夜本이 유일하다. 일야본은 일본의 도겐(道元, 1200~1253)이 송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것으로서, 도겐이 귀국한 것이 1227년이므로 그 이전에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도겐이 神人の 도움으로 하룻밤에 필사했다고 해서 일야본이라고 부르는데, 정식명칭은 佛果碧巖破關擊節이다. 일야본이 『碧巖錄』의 고행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100칙의 배열순서가 『雪竇頌古』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본으로서로는 福本·蜀本·唐本·張本이 있는데, 복본과 촉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예부터 주로 유통된 것은 장본이었다. 장본이란 元代에 張煒(字가 明遠)가 여러 간본을 교정하고 칙의 배열을 고쳐서 1300년에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야본의 칙의 배열순서가 『雪竇頌古』와 일치하는 반면 장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 66칙~제 93칙 사이의 배열순서가 크게 차이가 난다. 현재 장명원이 어떤 근거로 칙의 배열을 고쳤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복본·촉본 등 장본이전의 간본에서 칙의 배열순서가 여러 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碧巖錄』은 ‘宗門第一書’라고 불릴 정도로 임제종에서는 중요한 문헌이며 선문학의 백미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시되어 수많은 개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개판횟수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317년(충숙왕 4)에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잔권에 불과하다고 한다.⁷⁾ 또한 조선시대에도 간행횟수가 많지 않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시되어 많은 개판이 이루어져 왔고 주석서도 많이

7) 송일기, 박지숙, “황해도 사찰 간행불서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2016), 403.

간행되었다.

2.2.2 『梵絶老人天奇直註雪竇顯和尚頌古』 등⁸⁾

① 『梵絶老人天奇直註雪竇顯和尚頌古』

줄여서 『雪竇頌古直註』라고도 한다. 2권. 현재 만속장경 X67(n 1302)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중국 명대의 天奇本瑞(생물연대 미상)가 저술한 것이다. 本瑞는 자가 天奇(琦)이며 梵絶老人이라고도 부른다. 임제종의 승려로서 寶峰明瑄의 법을 이었다. 1488년(弘治 원년)에 江西省 隆興寺에서 본서를 저술하였는데, 이와 함께 靑지송고의 주석서인 『梵絶老人天奇直註天童覺和尚』 2권도 저술하였다.

본서는 『碧巖錄』에 의거하지 않고 직접 『雪竇頌古』에 대해서 주석을 가한 것으로서, 『雪竇頌古』 자체의 주석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듯해서 중국에서도 간행횟수가 적었다고 한다.⁹⁾

② 『重拈雪竇舉古一百則』

중국 元代의 古林清茂(1262~1329)가 편찬한 것이다. 고림청무는 임제종의 승려로서 자가 清茂이고, 호는 金剛幢, 休居叟라고 한다. 橫川如珙의 법을 이었다. 본서는 1312년(皇慶 원년)에 간행되었으며, 『古林茂禪師語錄』 권3(만속장경 X71, n 1412)에 들어 있다.

③ 『雪竇顯禪師頌古百則稱提』

일본의 面山瑞方(1683~1769)이 『雪竇頌古』를 評唱, 拈提한 것이다. 2권. 1788년(天明 8)에 간행되었다. 이것을 더욱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 面山の 『雪竇

8) 이하의 내용은 주로 일본에서 나온 駒澤大學圖書館 편, 『新纂禪籍目錄』(일본: 日本佛書刊行會, 1965)과 禪學大辭典編纂所 편, 『新版禪學大辭典』(일본: 大修館書店, 1996)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9) 入矢義高等譯(1982), 298.

頌古稱提聞解』인데 사본이 전하고 있다.

④ 『雪竇頌古註』

일본의 連山交易(1635~1694)이 간행하였다. 연산교역은 조동종의 승려로서, 호가 連山이다. 1690년(元祿 3)에 본서를 간행하였는데, 현재 『管見錄』 권7~10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面山瑞方の 『雪竇顯禪師頌古百則稱提』와 連山交易의 『雪竇頌古註』는 모두 『雪竇頌古』 자체를 주석한 것이 아니라, 『碧巖錄』에서 추출한 텍스트에 의해 주석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雪竇頌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斧山玄鑑의 『雪竇禪師頌古稱提詮衡』과 西有瑾英의 『雪竇頌古稱提提耳錄』 등의 주석서가 전한다.

2.3 『雪竇頌古』의 한국 전래와 유통

설두증현의 저작들은 고려시대부터 전래되어 영향을 미쳤다. 우선 고려중기 문벌귀족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37년간 참선했던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은 당나라의 승려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의 어록을 통해 선지를 깨쳤을 뿐만 아니라 설봉의 제자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과 雪竇重顯 등 운문종의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慧素가 쓴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에 잘 나타나 있다.

“(전반 결락) 스스로 주맹이 되었다. 雲門의 정수와 雪竇의 정화를 받았으며, 뛰어난 근기를 품고 시종 발명하였다.”¹⁰⁾

설봉의존은 중국 절강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승이고, 설봉의 제자가 바로 운문

10)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 『조선금석총람』 상, 328.

“自爲主盟. 雲門之髓, 雪竇之英, 囊括玄機, 終始發明.”

문언이다. 따라서 설봉문화에서 운문종이 나왔으며, 설두중현은 운문종을 대성시킨 인물이다. 이에서 보면 이자현은 운문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운문종의 어록들이 일찍부터 고려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2세기에는 『雪竇頌古』와 『雪竇拈古』가 고려의 禪門에서 광범위하게 읽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84년(고려 명종 14)에 왕명에 의해 문신 이지명(李知命, 1127~1191)이 기문을 짓고, 이듬해 性印禪師 淵懿가 비문을 썼던 『重修龍門寺記碑』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해년(1179)에 창사의 공정이 끝나자 九山禪門의 문도 500인을 모아서 50일 간의 담선법회를 열고, 단속사의 효돈으로 하여금 『傳燈錄』, 『楞嚴經』, 『仁岳集』, 『雪竇拈頌』 등을 강의하도록 청하였다.”¹¹⁾

이 기록은 경북 예천의 용문사를 중수하였을 때 쓴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규모의 談禪法會에서 『景德傳燈錄』 등과 더불어 『설두염송』을 강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두염송이 이미 12세기의 고려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으며, 선림의 대표적 교재로서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雪竇拈頌이란 물론 『雪竇頌古』와 『雪竇拈古』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¹²⁾

이때의 설두염송이란 『설두칠부집』에 실린 설두염고와 설두송고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설두칠부집』은 1065년 이전에 이미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시 운문종이 성대하였던 중국 福建지방과 고려는 출판물의 거래가 활발하여 웬만한 불교전적은 간행 후 머지않아 고려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설두칠부집』도 일찍부터 고려에 수입되어 읽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설두칠부집』은 1226년에 眞覺慧謙(1178~1234)에 의해 편찬된 『禪門拈頌集』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禪門拈頌集』에는 총 273칙에

11) 重修龍門寺記碑, 『조선금석총람』 상, 410.

“己亥年創寺工畢, 會九山門學徒五百人, 設五十日談禪法會, 請斷俗寺孝悌, 教習傳燈錄楞嚴經仁岳集雪竇拈頌.”

12) 원오극근이 『雪竇頌古』에 평창과 착어를 붙인 것이 『碧巖錄』이고, 『雪竇拈古』에 평창과 착어를 붙인 것이 『擊節錄』이다.

설두의 著語가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大慧宗杲·宏智正覺·圓悟克勤과 더불어 최대의 인용빈도라고 한다. 또 설두의 착어는 『설두칠부집』에서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설두칠부집』 가운데서도 『祖英集』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골고루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염고와 송고에서의 인용이 압도적이라고 한다.¹³⁾ 즉 1226년에 편찬된 『禪門拈頌集』에 설두칠부집 속의 『雪竇頌古』와 『雪竇拈古』가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때, 『雪竇頌古』는 고려시대부터 많이 읽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1246년에는 고려승 龜巖(생물연대미상)에 의해서 『禪門三家拈頌集』이 간행되고 있는데, 선문삼가염송집은 『禪門拈頌集』 1,125칙 가운데에서 설두중현, 굉지정각, 원오극근의 염과 송만을 뽑아내어 간행한 것이다.¹⁴⁾

고려시대에 이와 같이 『雪竇頌古』를 비롯한 중국 운문종의 저작이 간행되고, 나아가 역대의 염과 송을 모은 방대한 『禪門拈頌集』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송고문학이 고려선림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설두중현, 원오극근, 굉지정각 3인의 착어만을 골라 따로 『선문삼가염송집』을 간행했다는 사실은 이들 3인이 송고문학의 대표로서 인지되고 있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시대에 『雪竇頌古』나 『설두칠부집』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현존본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 보면 12, 13세기 고려에서 『雪竇頌古』가 많이 읽혔고, 심지어는 선문의 대표적 공안집으로서 강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간행기록은 없지만 『雪竇頌古』가 단독으로 혹은 『설두칠부집』으로서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雪竇頌古』가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15세기에 목활자로 인쇄된 이 『雪竇頌古』는 四家錄의 일부분으로서 간행된 것이다. 사가록이란 頌古百則을 남긴 대표적인 중국선승인 雪竇重

13) 조명제, “수선사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七部集』,” 『한국사상사학』 42(2012), 169.

14) 선문삼가염송집의 정식명칭은 禪門雪竇天童圓悟三家拈頌集으로서 1246년에 간행된 판본은 남아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 세조때인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것이 현존한다. 이는 『한국불교전서』 제11책에 수록되어 있다.

顯·宏智正覺·投子義青·丹霞子淳의 4인을 말한다. 즉 이 4인이 남긴 송고백 칩을 모아서 사가록이란 이름으로 합간한 것이다.

호림박물관소장본을 보면 권수에는 曇玉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重刊四家錄後序가 붙어 있는데 ‘至正壬午春香山惠川福珪序’라고 되어 있다. 즉 중국 元代인 至正 2년(1342) 봄에 香山에 주석했던 혜천복규가 후서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香山은 浙江省 慈溪縣에 있는 절로서, 예부터 香草의 산지였으므로 香山이라고 부른다. 호림박물관본은 1342년에 절강성에서 간행된 四家錄本 『雪竇頌古』를 조선시대에 재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국에서 『雪竇頌古』의 간행 및 판본

3.1 호림박물관 소장 『雪竇頌古』의 서지사항과 특징

『雪竇頌古』가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남권희 교수에 의해서이다. 남 교수는 그의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시기[고려]의 판본들로 실물은 전하지 않으나 교장(敎藏) 계통의 중간(重刊) 판본들이 조선조 세조 때의 목활자본으로 수종이 남아 전하는 바, 예를 들어 『釋氏要覽』, 『碧巖錄』, 『釋迦如來行蹟頌』, 『傳法正宗記』, 『圓教六卽義』 등이 있다. 이때 간행된 불경의 장소(章疏)와 더불어 그 밖의 다른 저술도 활자로 간행되었으니, 그 중 『雪竇顯和尚頌古集』은 參學小師 遠塵이 집찬한 것으로 권두에 重書記와 권말에 ‘… 지정임오춘향산혜천복규서’라는 당시의 서문을 그대로 실고 있다.¹⁵⁾

이 설명과 함께 설두현화상송고집의 권수면 사진을 실고 있는데,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사진이 호림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술총서 2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29.

따라서 호림박물관 소장 『雪竇頌古』가 세조때 간행된 목활자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호림박물관을 방문하여 실사를 행하였는데,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호림박물관 소장 설두현화상송고

雪竇顯和尚頌古 / 參學小師 遠塵 集 ; -- 木活字本,
불분권1책(완) : 四周單邊, 半郭 21.5 x 15.0 cm, 有界, 11行21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3.5 x 20 cm

版心題 : 雪竇

表題 : 雪竇明覺和尚頌古集

序 : 雪竇明覺和尚頌古集序...至正壬午歲(1342, 고려 忠惠王 3년)重書(曇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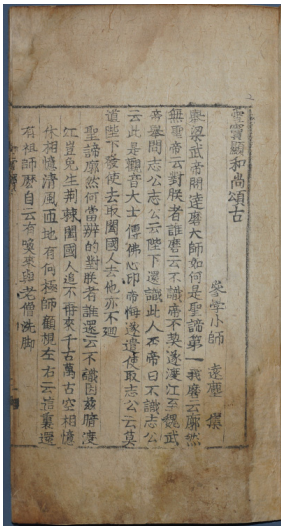
後序 : 重刊四家錄...至正壬午(1342)春香山惠川福珪序

종이 : 고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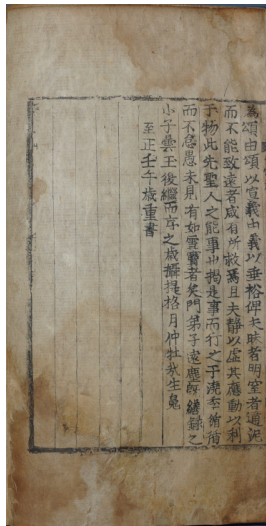
상태 : 부분 배접

소장 : 호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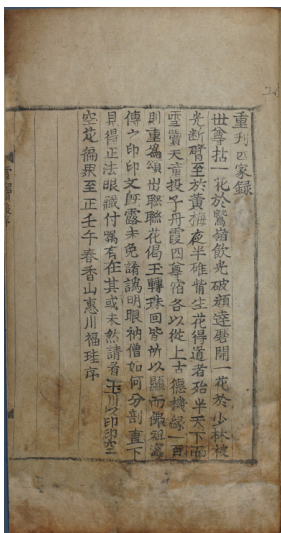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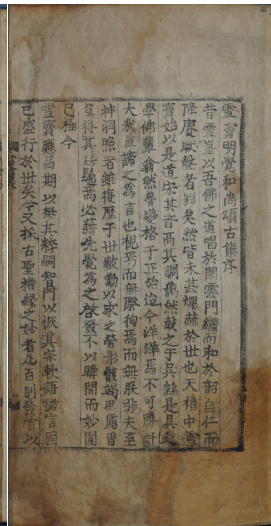
소장경위 : 최길동으로부터 1990년대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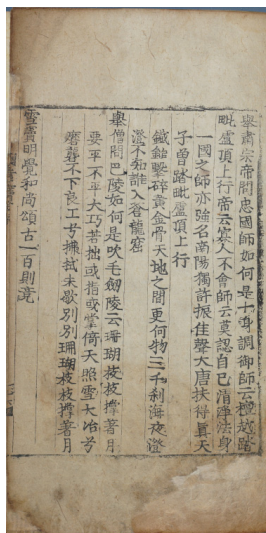
권수제: 설두현화상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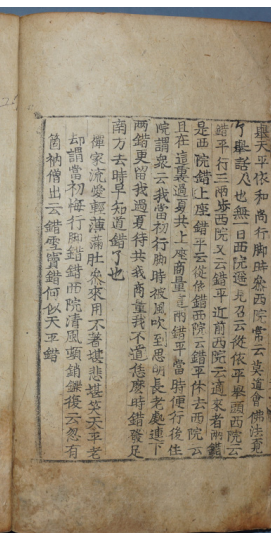
曇玉의 서문



권말: 重刊四家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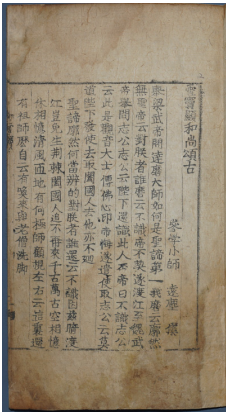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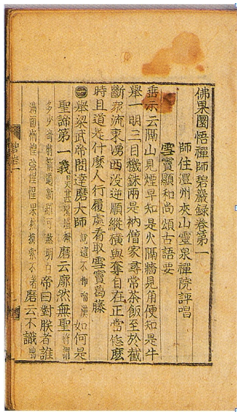


권말제: 雪寶明覺和尚頌古一百則



『雪竇頌古』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

한편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을유자본 『碧巖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목활자본 『雪竇頌古』	을유자본 『碧巖錄』 권1 ¹⁶⁾
권수제면			
서명(권수제)		雪竇顯和尚頌古	佛果圓悟禪師碧巖錄
저자사항		參學小師 遠塵 集	師住澧州夾山靈泉禪院評唱 雪竇顯和尚頌古語要
판사항		목활자본(방을유자)	금속활자본(을유자 중간자)
간사 사항	간행지	미상	[한양]
	간행처	미상	[주자소]
	간행년	세조조	1465(세조11)~1484(성종15)년 을유자
형태 사항	권책수	불분권 1책(완)	10卷5冊(完)
	번란	사주단변(四周單邊)	사주단변(四周單邊)
	계선	유계(有界)	유계(有界)
	반곽의 크기	반곽(半郭) 21.5 × 15.0 cm	반곽(半郭) 19.5 × 13.3 cm
	항자수	반엽(半葉) 11행(行) 21자(字)	반엽(半葉) 11행(行) 19자(字) 註雙行
	판구	백구(白口)	백구(白口)
	어미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책크기		33.5 × 20.0 cm	28.3 × 19.0 cm
판심제		雪竇	碧巖
문화제 지정			보물 제1093호

16)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碧巖錄)”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930000,11#>, 2016.8.15. 접속

이로 볼 때 판식이 동일함을 미루어 호림박물관소장 설두송고는 을유자본 벽암록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2 조선전기 공안집의 간행

호림박물관 소장의 『雪竇頌古』는 간기가 없어 간행자와 간행장소 등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간행한 것일까?

승유억불책을 추진했던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비교적 많은 불서들이 간행되었고 선적도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특히 세조대에는 많은 선적들이 간행되었다. 『雪竇頌古』의 간행목적 등을 고찰하려면 같은 성격의 공안집인 『禪門拈頌集』과 『碧巖錄』 등의 간행사례를 살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2.1 『禪門拈頌集』

『禪門拈頌集』은 고려시대에 眞覺慧謙(1178~1234)이 공안 1,125칙과 이에 대한 선사들의拈,頌 등을 채집하여 엮은 것이다. 그런데 이 『禪門拈頌集』은 조선 전기에 꾸준히 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전기 『禪門拈頌集』의 간행사항¹⁷⁾

王名	간행연도	간행처	비고
成宗	1472년(成宗 3)		仁粹大妃가 世祖, 睿宗 등 죽은 왕실의 구성원을 천도하기 위해
燕山君	1499년(燕山君 원년)	石水庵	
明宗	1546년(明宗 1)		
明宗	1566년(明宗 21)	法興寺	

17) 본 표는 김영리, “조선시대 활자본 불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와 이철교 등, 『禪學辭典』 (서울: 불지사, 1995)에 실린 <禪宗史年表>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禪門拈頌集』은 고려시대 이후로 『경덕전등록』과 함께 선승들의 필독서로서 간주되고 있었는데, 조선초기에도 그러한 경향은 이어졌다. 우선 태조실록 7년조에는 尙聰이 태조에게 ‘선승들에게 경덕전등록과 염송을 학습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태조가 이를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⁸⁾ 나아가 세조대에 완성된 『經國大典』(1485년 반포) 『禮典』의 度僧에는 ‘선교양종은 매 3년마다 選試를 본다. 선종은 傳燈錄, 禪門拈頌을, 교종은 華嚴經, 十地論을 시험보여 각각 30인씩을 뽑는다’¹⁹⁾고 규정하고 있다. 즉 『禪門拈頌集』은 僧科에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간행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에서 『禪門三家拈頌集』이 간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선문삼가염송집』은 원래 고려시대인 1246년에 龜巖이 편찬한 것으로서, 『禪門拈頌集』 안에서 설두중현, 평지경각, 원오극근 세 선사의 염과 송을 발췌해서 엮은 것이다. 이것을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간경도감에서 이를 간행한 것은 『禪門拈頌集』과 그 축약본인 『선문삼가염송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2 『碧巖錄』

이에 비해 같은 성격의 공안집인 『碧巖錄』은 조선전기에 별로 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禪門拈頌集』이 빈번하게 간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儒者를 비롯한 일반서민들에게 『碧巖錄』은 생소한 것이었는데, 연산군 7년(1501) 9월 17일에 일본국 사신 朋中과 智瞻 등이 『碧巖錄』 등의 책을 요구하였는데 『碧巖錄』이 무슨 책인지 몰라서 도리어 붕중에게 물었다는 기사²⁰⁾를 볼 때 『碧

18) 『태조실록』, 태조 7년(1398) 5월 13일 기사.

“願殿下繼今，於禪教之中，擇有道德才行可爲領袖者，主諸中外名利，而使宗禪者說禪乘拂，主教者講經談律。令其後進，禪則傳燈拈頌，教則經律論疏，追節講習，積以年月，宏才碩德，無寺無之。”

19) 『經國大典』 권3, 『禮典』, 度僧.

20) 『연산군일기』, 연산군 7년(1501) 9월 17일 기사.

“日本國使臣朋中智瞻等，求東坡詩集碧巖錄黃山谷等冊，命給之。碧巖錄未知何冊，其間

巖錄』에 대한 당시의 인지도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선전기에 간행된 『碧巖錄』의 간본은 1465년(세조 11) 을유자 중간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倣乙酉字體의 목활자본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1526년(중종 21)에 黃海道 黃州牧 深源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이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²¹⁾ 『碧巖錄』의 간행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을유자본 『碧巖錄』

을유자본 『碧巖錄』은 을유자가 사용된 시기인 1465년~1484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간행연도와 간행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조실록 1467년(세조 13) 조에는 일본 유구국의 사신과 왕에게 『碧巖錄』을 선물로 주었다는 기록²²⁾이 있는 것으로 보아, 1465~1467년 사이에는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사신과 왕에게 선물을 줄 때 사찰간본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을유자로 간행된 『碧巖錄』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을유자본 『碧巖錄』에는 간기가 없어 언제, 누가 간행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1317년 馮子振의 後序 등 元代 승려들의 발문과 후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元代의 간본을 가져와 금속활자로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 활자는 간행 후 바로 해체하므로 많은 부수를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B. 심원사판 『碧巖錄』

1526년(중종 21)에 황해도 황주목 심원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권 4 말미의 간기에는 化主로서 學淸·戒默·省寬, 刻手로서 儀安·儀浩·法通·敬徽 등의 이름이 보인다.

黃海道黃州牧慈悲山 深源寺는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로서, 황해도 연탄군 연탄읍에 현존하고 있다. 현재는 心源寺라고 불리며 북한의 국보유적

於彌中.”

21) 송정숙,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서지학연구』 60집(2014. 12).

22)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 8월 14일 기사, 8월 17일 기사.

제91호이다. 1709년(숙종 35)에 李汝澤이 쓴 『心源寺事績碑』에 의하면, 원래 고려초에 道詵國師에 의해 개창되었으며 고려말에 李穡(1328~1396)에 의해 중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심원사사적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천년 동안 이야기가 잊지 않고 전해 오는데 그 후 해가 오래되어 법당과 선방이 거듭 퇴락하였습니다. 正德 원년(중종 원년, 1506년)과 萬曆 8년(선조 13, 1580년)에 간혹 4중창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백여년이 지나 당우는 퇴락하여 기울고 법당은 쓸쓸하여 승려들이 개연히 중창할 뜻을 가졌으나 일이 크고 힘이 이어져야 하기에 아직까지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²³⁾

이 기록에서 보아 심원사는 고려말에 이색에 의해 중수된 후 계속 퇴락하다가, 조선시대의 중종~선조대에 네 차례의 중창이 있었다고 한다. 즉 심원사는 고려말 이후 죽 퇴락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중창을 거듭하여 대찰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심원사에서 많은 불서가 간행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⁴⁾ 중종~명종대에 간행된 심원사 간행의 불서는 총 10종인데, 이중 선적으로서는 『金剛經五家解』(1524년), 『南明泉和尚證道歌』(1526년),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25년), 『佛果園悟禪師碧巖錄』(1526년), 『禪林寶訓』(1555년)의 5종이다.

1526년에 간행된 『碧巖錄』은 을유자본 『碧巖錄』의 번각본으로서,²⁵⁾ 승려와 관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시주로 간행되었다. 화주인 學淸, 省寬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戒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金安老(1481~1537)의 『希樂堂文稿』 권4에는 ‘병을 피해 거처를 옮기니, 승려 계목이 와서 안부를 물으

23) 심원사사적비,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1.jsp>.

“至今傳說千載不忘，而其後歷年已久，佛宇禪旁累爲頽落。正德元年萬曆八年間，或說四重剎。而今至百有餘年，棟宇傾頽，天宮蕭條。僧徒慨然有重營之志，而事大力綿，迄今未果。”

24) 송일기, 박지숙(2016), 402.

25) 송정숙(2014), 141.

매 편지를 써서 주었다²⁶⁾는 기록이 보인다. 김안로는 중종대 좌의정을 지낸 인물로서 당시의 유력 정치가였다. 그런데 김안로의 고향이 黃海道 延安이다. 따라서 계목이 같은 지역출신인 김안로와 일찍부터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종~선조연간에 심원사에서는 네 차례의 중창이 있었고 많은 불서를 간행할 만큼 대찰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계목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그는 당시의 세도가인 김안로와 교류할 정도로 고승이었는데, 현재 심원사에 『默大師靈筆』이 현존하고 있어 그가 학식이 높은 고승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비록 당시 『碧巖錄』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심원사에서는 이를 간행할 만한 역량과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²⁷⁾

3.2.3 호림박물관 소장 『雪竇頌古』의 간행경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국대전』에서 선승에 대한 선시의 과목으로서 『경덕전등록』과 『禪門拈頌集』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에는 선문염송이 종종 간행되었다. 반면에 같은 성격의 공안집인 『碧巖錄』은 연산군 7년(1501)에 『碧巖錄』이 무슨 책인지 몰라서 일본사신에게 물었다는 기록에서 보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간행도 드물었다. 그러나 『碧巖錄』은 ‘宗門第一書’라고 말해지듯이 공안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며, 수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진 명저이기도 하다. 따라서 송유억불의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일부의 학식있는 승려들과 선에 흥미가 있는 선비들에게 읽혀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26) 『希樂堂文稿』 권4, 한국고전종합DB.

“避病遷寓，跽音久益絕。安獨齋僧戒默來問獨勤，書以與之。

干和癘氣遠纏連。十室三空最可憐。(疫癘之氣，初自西陲，薰染轉遠，死亡相繼，村間多空。) 天地一身長客寄。萍蓬百口屢居遷。默州酬什無明叔。吏部留衣有大顛。(山谷謫黔中，與楊明叔交遊唱酬。昌黎與大顛。留衣服爲別。此地無士類。只有山僧來往而已。) 咫尺香林堪結社。病倅何計學高禪。”

27)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心源寺項에서는 ‘1573년(선조 6)에는 戒墨이 중수하였고, 1574년에 53불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526년에 『碧巖錄』을 간행한 戒默과 1573년에 심원사를 중수한 戒墨은 50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동일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雪竇頌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碧巖錄』을 읽고 즐기는 사람들은 『雪竇頌古』를 읽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碧巖錄』과 『雪竇頌古』는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碧巖錄』은 원래 여러 계통의 간본이 있었는데 1300년에 장명원이 정리하여 새로이 定本을 만들었고, 오늘날에 주로 유통되는 것은 이 장명원본이다. 그런데 이 장명원본은 원래의 『雪竇頌古』와 공안의 배열순서가 많이 다른 것이 문제이다. 즉 제 66칙부터 제 93칙의 순서가 『雪竇頌古』와 크게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雪竇頌古』의 제 76칙 金牛每至齋時와 제 77칙 大光長慶作舞는 연속해서 읽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인데, 『碧巖錄』에서는 이를 제 74칙과 제 93칙에 넣고 있어서 이해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柳田聖山씨는 ‘張氏는 正見을 가지고 변경을 가한 것이라기보다 부주의에 의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²⁸⁾’고 비판하고 있다. 종래 『碧巖錄』을 읽던 사람들은 이 점을 문제시하고 있었고, 따라서 원본인 『雪竇頌古』를 보고자 했다. 따라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雪竇頌古』를 읽고자 하는 수요는 조선전기에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雪竇頌古』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대장경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간행된 『雪竇頌古』를 가져와 목활자로 소량의 부수만 인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중국국가도서관과 대만국가도서관에도 똑같은 至正 2년에 간행된 사가록이 현존한다. 國家圖書館善本(N.8942)에 들어 있는 이 사가록은 전부 4권으로서 宏智頌古, 雪竇頌古, 投子頌古, 丹霞頌古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각각 독립해서 간행된 것을 1342년에 합간한 것이다. 우선 磽石송고의 권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²⁹⁾

至正二年歲次壬午葵賓一日大明禪寺住持(海島)刊板印施流通
香山侍者 圓明 書
告白慕道高流此板見在西香山用者請來印造

28) 入矢義高等譯(1982), 301.

29) 사가록의 내용은 대만 중화전자불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cbeta.org/>에서 볼 수 있다.

大道者山雲峯禪寺住持嗣祖沙門月巖 德明 助緣
 大香山永安禪寺住持嗣祖沙門惠川 福珪 助緣
 大甘泉普濟禪寺住持嗣祖沙門東溟 海潮 助緣
 大萬壽禪寺住持嗣祖沙門玉川 道倨 助緣
 大承天護聖寺住持月潭大師 了資 助緣

즉 이 사가록은 호림박물관 소장본의 원본과 같은 해인 1342년(至正 2)에 간행되었으며, 간행자는 大明禪寺 住持인 海島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助緣者 중 한 사람으로서 ‘大香山永安禪寺住持嗣祖沙門惠川 福珪’가 들어 있는데, 혜천복규는 바로 호림박물관 소장본에 重刊四家錄後序를 쓴 사람이다. 결국 혜천복규는 당시 중국 절강성의 永安禪寺에서 住持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국가도서관본의 설두송고에 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慧從이다. 따라서 중국국가도서관본과 호림박물관본의 원본은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1342년(至正 2)에 중국 절강성에서는 사가록이 몇 번이고 간행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호림박물관 소장본의 원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국국가도서관본의 설두송고의 후서는 慧從이 쓰고 있는데, 그 후서는 ‘新刊四家錄後序’³⁰⁾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호림박물관본에는 ‘重刊四家錄’이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호림박물관본에는 권수의 曇玉의 서문 뒤에 ‘至正壬午歲重書’³¹⁾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국가도서관본에는 이 글자가 없다.

30) 新刊四家錄後序

玉川島公得法於東山退堂東溟老出世累遷大刹所至學者雲集清規整肅及住瑞妙之香岩道場大[門@井]法旋振起宗風東方學徒如知趣向未幾以法弟中峯允堂頭領其寺事來謁雲山野人曰余以不省忝主香岩有年矣與二三子固守窮山僧無所詣時敏提獎之以報佛恩自愧見解荒疎不敏發明之耳而叢林所謂四家錄者乃浮門之關鍵學者之指南其奈板本歲久傳寫失真未免有烏焉成馬之誚加以蓬門下衰宗風凋契况彼偏陬一隅久失教導雖髮白齒黃有不識其面者甚可愍傷今欲重新刊板以廣流通庶與後學廓其逕路直趨闡域敢祈大手筆裝寫復爲後序發明佛祖大意以壽永久願師爲我成之余壯玉川之志即應之曰我宗無語句本無一法與人今諸方老宿法錄成帙豈止四家而已初妙堯老翁恐人溺於文字之學遂至斧其板火其書子復區”作此他時[前-刪+合]遇上根利智責我以刻劃虛空說夢中夢則我与汝未免一場敗闕也歟雖然彼以無所錄而錄我以無所敘而敘所謂不空一切法不法世間相庸何傷手但恨老眼昏花不敏副其來意故直書其事以紀其歲月云。

時至正壬午葵寅卽日雲山野僧慧從書

31) 앞의 호림박물관본의 <曇玉의 서문> 사진 참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342년에 중국 절강성의 大明禪寺 海島에 의해서 新刊四家錄이 간행되었고, 이 때 惠川福珪는 助緣을 담당하였다. 그 후 같은 해에 다시 혜천복규가 이를 重刊하였고 『雪竇頌古』에 重刊四家錄後序를 쓴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중간사가록을 조선 세조 때에 목활자로 찍은 것이 호림박물관본이다.

4. 결 론

호림박물관 소장의 『雪竇頌古』는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유일본이다. 따라서 대단히 귀중한 간본이라 할 수 있다. 남권희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세조 때에 간행된 목활자본이라 한다. 하지만 간기가 없어서 정확한 간행자와 간행년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해인 1342년(至正 2)에 중국의 절강성에서 간행된 사가록이 있어 호림박물관본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중국국가도서관본의 『雪竇頌古』에 후서를 쓴 사람은 慧從이지만, 호림박물관본에 후서를 쓴 사람은 惠川福珪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간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혜천복규는 중국국가도서관본 사가록을 간행할 때 조연을 맡고 있었고, 두 간본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해에 간행된 것이다. 나아가 중국국가도서관본에는 新刊四家錄이라 되어 있고, 호림박물관본에는 重刊四家錄이라 되어 있는 사실에서 볼 때, 1342년 중국의 절강성에서 海島, 福珪 등에 의해 신간사가록이 간행되었고 얼마 후 같은 해에 福珪에 의해 중간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을 조선에 가져와 목활자로 찍은 것이 호림박물관본이다.

현재 호림박물관 소장의 『雪竇頌古』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에 『설두송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것을 생각할 때 소수의 학식있는 승려나 선에 관심이 있는 선비들에 의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雪竇頌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적을 구해 와서 이것을 목활자로 찍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錄』. 일본: 日本佛書刊行會, 1965.
- 入矢義高等譯. 『雪竇頌古』. 禪の語錄 15. 일본: 竺摩書房, 1982.
- 末木文美士 編. 『現代語譯 碧巖錄』. 일본: 岩波書店, 2003.
- 禪學大辭典編纂所 編. 『新版禪學大辭典』. 일본: 大修館書店, 1996.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술총서 2.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김현숙. “조선 世祖朝의 인쇄문화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 김영리. “조선시대 활자본 불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송일기, 박지숙. “황해도 사찰 간행불서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1호(2016. 2). 395-416.
- 김기중.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8(2012).
- 송정숙. “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서지학연구』 60집(2014. 12). 109-143.
- 천해봉. “朝鮮前期佛書版本.” 『서지학보』 5(1991).
- 조명제. “수선사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七部集.” 『한국사상사학』 42(2012).
- 永井政之. “雪竇頌古の展開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2-1(1973).
- 末木文美士.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1992).